

해남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지원시책 펼쳐

해남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이차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노력

해남군은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남군은 코로나19 방역단계가 향상되면서 매출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경제방역'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지역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액을 1,150억원까지 확대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4월 첫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은 15개월여만에 1000억원의 판매 돌파한 가운데 올해 발행분 또한 현재까지 948억원이 판매되며

82.4%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해남사랑상품권을 정책지원과 연계한 점도 크게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규모 사업체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해남형 소상공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도내 유일하게 시행, 현재까지 6548업체에 각 100만원을 지원했다.

군은 경영안정자금 중 50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데 이어 3226개 사업체에 각 30만원씩 지급한 소상공인 공공요금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00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81억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에

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은 소상공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차지원과 특례보증출연,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등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출금 이차지원은 3,000만원 범위에서 대출이자 3%를 지원, 실제 소상공인은 0.4%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의 대출금 규모가 평년에 비해 4~5배 늘어남에 따라 특례보증 출연금도 5배 늘려 5억 원을 출연했고, 업체별로 대출 시 발행하는 보증수수료(30~50만원)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확보하는 등 파격적인 예산 편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힘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남군은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해 총 27개소에서 개선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그 밖에도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 확대 추세에 맞춰 전자상거래 창업 지원을 위한 'e-커머스 창업챌린지 사업'과 가업을 승계하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대를 이어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가업승계지원' '소상공인 정보공유 플랫폼' '온라인 마케팅 홍보지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도내 유일하게 소상공인 전담 조직인 소상공인팀을 신설, 지역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적극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무안 친절 공무원 민원인 추천해주세요

군 홈페이지 사이버설문 통해 진행

무안군은 지난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하반기 청렴·친절 공무원을 추천받고 있다.

청렴·친절 공무원 선정은 무안군 홈페이지·열린군정·소통/참여·사이버설문을 통해 진행되고, 각종 업무처리나 민원 응대시 청렴하고 친절하다고 느끼는 직원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청렴·친절 공무원 선정시 주민들이 자유롭게 작성하던 홈페이지 '칭찬합니다'에 게재된 내용들을 반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이버설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했다.

청렴·친절 공무원은 사이버설문을 비롯해 자체감사 시 업무추진 실적과 청렴메시지 게재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연말에 선정하며, 대상자들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특히, 상위 2명은 청백친절봉사대상자로 우선 추천되는 영예도 주어지는 만큼 공정한 선정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김산 군수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열심히 일하는 조직,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는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열심히 일하는 조직,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는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신안 섬 왕새우 축제 취소 코로나19 확산 차단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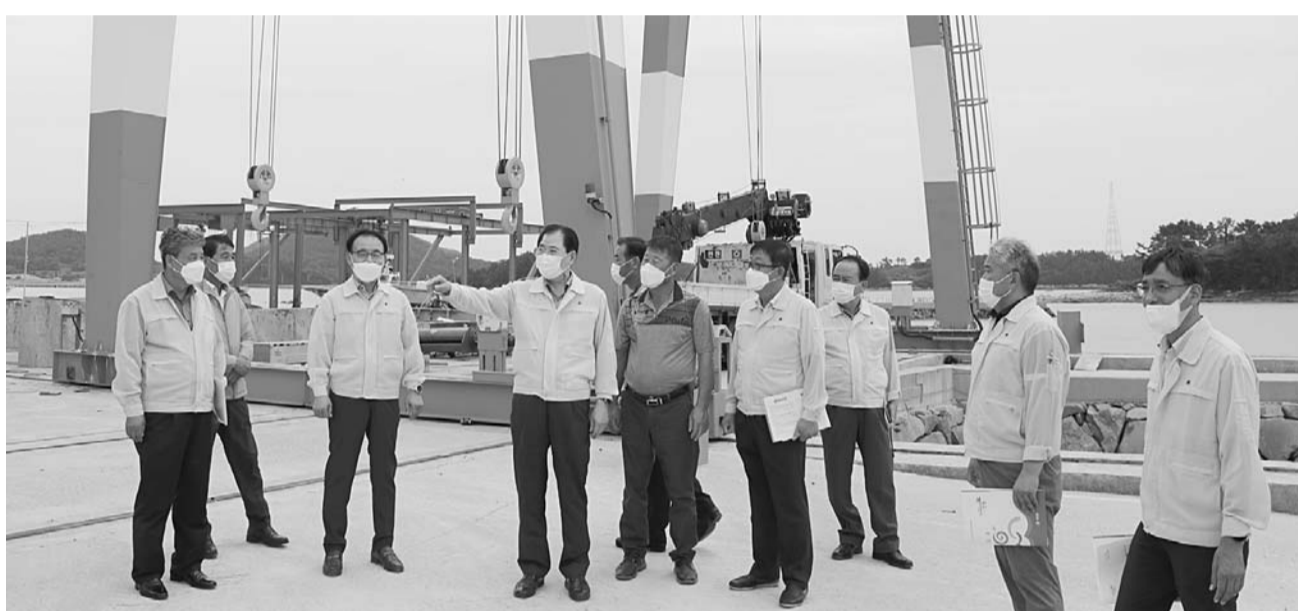
신안군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차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환으로 9월 안좌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신안 섬 왕새우 축제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왕새우는 최단기간(4~5개월 소요)의 양식품종으로,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 예방, 피부노화 방지 등의 효능과 함께 키토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주는 고단백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신안 왕새우는 게르마늄과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맛과 영양면에서 소비자(미식가)들로부터 정평이 나고 국민의 먹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섬 왕새우 축제를 취소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내년엔 더 알차고 다채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신안군 왕새우는 8월말 기준 1kg(30~35미)당 20~22000원으로 전년도(출하시기) 대비 4~5000원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며, 9월중순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우철 완도군수, 재해 취약지역 특별 현장 점검. 지난 1일 신우철 완도군수와 봉진문 부군수는 지난 1일 9호 태풍 '마이삭'을 대비해 어선 대피 상황, 양식장 시설물, 대형 공사장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완도군 제공

영암군 가족센터 건립 국비 공모사업 선정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비 공모사업 처음

영암군은 지난 1일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 지자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군에 있어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는 처음 추진될 이번 사업은 영암군 산호읍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가

족부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까지 포함 42억원과 문화관광부의 작은도서관으로 5억원, 총 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영암군은 가족복합센터가 건립되면 더 다양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영암=김형두 기자

전동평 영암군수는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장소가 협소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진행되는 가족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군민에게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이루며 행복한 영암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오랜 역사 깃든 강진 전통된장 '인기'

우리 콩·국내산 천일염 사용... 면역력 강화 도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발효식품인 강진 전통된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강진에서는 대표적으로 3곳에서 전통된장을 생산하고 있다.

강진전통된장농법인에서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65호'로 해주씨 현감공과 종부인 백정자 선생이 만든 전통된장을 생산하고 있다.

100% 우리 콩과 3년 이상 간수를 뺀 국내산 천일염으로 된장을 담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96호인 정윤석 옹기장이 만든 전통옹기에서 숙성한 자연 그대로의 된장이다.

향심씨 장담그는 날 된장은 일반 콩보다 비싼 검정콩과 유기농 콩을 이용해 된장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검정콩 된장은 일반 된장에 비해 발효기간이 길어 콩단백질이 더 잘 분해돼 소화 흡수가 좋아 건강에 유익하다.

또한 '잡종은된장'에서는 특색있는 된장을 선보이고 있다. 장을 내리지 않고 삶은 콩에 소금과 특허받은 종균을 넣고 발효한다. '잡종은된



향심씨 장담그는 날 된장.

장' 대표 윤대식 씨는 장 제조 과정에서 외부의 유해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오랜 시간 연구해 방충, 방부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콩의 영양은 그대로 담겨있으면서도 짜지 않은 건강한 된장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강진 전통된장은 최근 학교급식 Non-GMO 사업을 통해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납품돼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강진의 10대 농식품 중 하나이기도 한 강진 전통된장은 현재 강진농협과 머스마켓 로컬푸드 매장과 택배로 판매되고 있으며, 구입문의는 061-433-8422로 하면 된다. /강진=한홍수 기자

명암의 농산물

건강과 웰빙의 대표농산물!

달마지쌀 골드

대봉감

매력한우

무화과

영암멜론

영암배

황토고구마

황토수박

명암우수 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